

한국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직장인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경미¹, 김은정^{2*}

¹경상대학교 간호대학·건강과학연구원 교수, ²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Factors Influencing Elderly Care Burden of A Working Family in Korean Nursing Facilities: A Convergence Approach

Kyung Mi Sung¹, Eun Jeong Kim^{2*}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Doctor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요양시설 노인의 돌봄 부담감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5개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153명의 직장인 가족이었다. 자료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그리고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장인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과의 관계, 요양비 부담정도,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0.8%였다. 또한 직장인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들을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신체적 부담영역별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돌봄 가족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중재방안에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요양시설, 가족, 노인, 돌봄, 부담감, 융복합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elderly care burden of a working family.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as 153 family member of elderly at five nursing facilit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July to October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WIN 25.0 program. Analysis result, explaining 20,8% of the variance, which indicated that subjects for giving care, monthly admission fee, burden of expenses, and satisfaction for fee servic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working family's care burden. Vari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influenced working family's care burden in aspects of emotional, social, economical, and physical burdens. Therefore, interventions to decrease working family's care burden must focus on their individual factors.

Key Words : Nursing home, Family, Elderly, Caring, Burden, Convergence approach

*Corresponding Author : Eun Jeong Kim(6166jin@naver.com)

Received December 24,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15,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장기요양신청자가 약 92만 명으로 이 중 78.1%가 1-5등급을 받았고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8%에 달한다[1]. 즉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많아졌지만[2]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구원의 감소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3]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요양시설에 노인 돌봄을 맡기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돌봄 부담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과 태도,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4].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가족의 돌봄 부담감은 가족과 노인의 관계,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 친밀도, 다른 가족의 지지 여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4],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돌봄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관계는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4,5]. 즉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가족이 경험하는 돌봄 부담감은 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경중뿐만 아니라 가족과 노인의 관계,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다른 가족들 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 속에서 그 경험과 의미가 다를 수 있다[7,8].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게 다른 가족의 이해와 도움은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키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더 잘 모시라는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여 돌봄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이 된 자식이 또 다른 노인을 돌보는 형국으로 돌봄 제공자의 건강상태나 연령은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친다[7].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가족의 돌봄 부담감에 대한 23편의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9]에서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돌봄 부담감의 내부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등이었으며, 외부적 요인은 환경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으로 돌봄의 영향이나 결과로 가족 및 사회생활의 제한이 생겨서 노인을 돌보기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여가활동의 감소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10]. 신체 건강 변화는 돌봄 과정에 육체적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데[11],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노인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건강 변화의 정도는 낮은 편이고[12,13], 오히려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더욱이 직장인의 경우 돌봄을 제공할 시간이 부족하고 사회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돌봄의 결과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문제들이 직장이 없는 경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돌봄 부담감에 대한 초기 연구는 돌봄 제공자의 주관적 감정으로만 간주되었으나 Thompson 등[15]에 의해 주관적 부담감뿐만 아니라 객관적 부담감의 개념도 설명되고 있다. 즉, 주관적 부담감(subjective burden)은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당혹감, 분개, 울가미를 쓴 느낌 등의 감정적 반응이나 태도를 의미하고, 객관적 부담감(objective burden)은 돌봄 제공 시간, 재정적 긴장, 사회적 활동의 제한 등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의 측면으로 살펴볼 때 직장인의 경우는 주관적 부담감에서 객관적 부담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돌봄 부담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 노인의 돌봄을 맡김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의 갈등 및 돌봄 부담감, 가족의 참여에 관한 연구[2,5,8,9,14,16,17]는 소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장인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돌봄 부담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 노인의 돌봄 부담감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직장인 가족의 돌봄 부담감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돌봄 부담감 측정도구 개발 연구[18]의 2차 분석에 의한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3개 지역의 5개 요양시설에 노인가족을 입소시킨 가족 중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들이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요양시설 입소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노인의 돌봄 제공자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가족원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선정의 제외기준은 정신건강문제를 진단받았거나, 심각

한 신체질환을 가진 대상자이다. 표본크기는 G*Power 3.1.3 program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할 때 효과의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수의 수 22개(일반적 특성 11개, 돌봄 관련 특성 11개)로 하였을 때, 137명이 필요하였으며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총 1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153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직장인 가족의 일반적 특성 11문항과 이들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봄 관련 특성 11문항, 그리고 돌봄 부담감 30문항[18]으로 이루어진 총 52문항의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직장인 가족의 연령, 동거가족, 월수입, 요양시설 입소자와의 관계,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였으며, 돌봄 관련 특성으로는 노인의 진단명, 입소기간, 요양비와 부담정도, 방문횟수 등을 포함하였다.

2.3.1 돌봄 부담감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가족의 돌봄 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김은정[1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의 5점 척도로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하위요인 별로는 사회적 부담감 .93, 경제적 부담감 .91, 심리적 부담감 .87, 신체적 부담감 .94였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A대학교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GIRB-A18-Y-0009)과 해당 요양시설의 허락 하에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자는 요양시설을 방문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여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정도 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으

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돌봄 관련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변수인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은 5점 척도 3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돌봄 부담감 점수는 150점 만점에 95.91 ± 16.57 점 이었으며,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20 ± 0.55 점 이었다. 하위항목들의 점수의 평균평점은 사회적 부담감 2.77 ± 0.73 점, 경제적 부담감 3.09 ± 0.74 점, 심리적 부담감 3.78 ± 0.59 점, 신체적 부담감 3.04 ± 0.76 점 이었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53.71 ± 8.74 세 이었으며, 50세 미만 64명(41.8%), 50~59세 68명(44.4%), 60세 이상 21명(13.7%)이었다. 성별은 남 71명(46.4%), 여 82명(53.6%)이었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 142명(92.8%), 배우자 없음 11명(7.2%)이었다. 종교유무는 종교없음 78명(51.0%), 종교있음 75명(49.0%)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42명(27.5%), 대졸 92명(60.1%), 대학원 이상 19명(12.4%)이었다.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44명(28.8%), 200~300만원 미만 47명(30.7%), 300만원 이상 62명(40.5%)이었다. 시설입소자와의 관계는 조부모 11명(7.2%), 부모 134명(87.6%), 배우자 등 기타 8명(5.2%)이었다. 입소전 거주지는 자택 131명(85.6%), 병원 22명(14.4%)이었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좋다 53명(34.6%), 보통이다 92명(60.1%), 나쁘다 8명(5.2%)이었다. 본인 질병여부는 질병있음 67명(43.8%), 질병없음 86명(56.2%)이었다.

3.2 대상자의 돌봄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돌봄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입원기간은 평균 2.94 ± 2.93 년 이었으며, 1년 미만 19명(12.4%), 1~2년

Table 1. Comparison of Care Burden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Variables	Categories	n	%	Care Burden				
				Total	Social	Economical	Emotional	Physic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Age (yr)	<50 ^a	64	41.8	3.25±0.58	2.86±0.72	3.16±0.75	3.84±0.59	2.96±0.83
	<60 ^b	68	44.4	3.17±0.55	2.75±0.74	3.08±0.74	3.75±0.60	2.99±0.67
	≥60 ^c	21	13.7	3.11±0.48	2.58±0.71	2.94±0.75	3.71±0.56	3.43±0.78
	F(<i>p</i>)			0.62(.541)	1.19(.306)	0.71(.495)	0.53(.591)	3.27(.041)
Scheffe Test				c>a,b				
Sex	Male	71	46.4	3.21±0.47	2.73±0.69	3.15±0.69	3.83±0.43	2.92±0.79
	Female	82	53.6	3.19±0.62	2.81±0.76	3.04±0.78	3.73±0.70	3.14±0.73
	t(<i>p</i>)			0.21(.831)	-0.65(.517)	0.94(.350)	1.06(.290)	-1.73(.085)
Spouse	Yes	142	92.8	3.20±0.56	2.76±0.74	3.12±0.75	3.78±0.58	3.01±0.77
	No	11	7.2	3.20±0.44	2.97±0.52	2.81±0.56	3.78±0.66	3.36±0.62
	t(<i>p</i>)			-0.04(.970)	-0.94(.351)	1.33(.187)	0.01(.997)	-1.47(.145)
Religion	Yes	78	51.0	3.16±0.53	2.74±0.72	3.01±0.73	3.79±0.54	2.98±0.74
	No	75	49.0	3.24±0.58	2.80±0.74	3.18±0.75	3.77±0.63	3.10±0.79
	t(<i>p</i>)			-0.88(0.382)	-0.52(0.607)	-1.49(0.138)	0.17(0.867)	-0.93(0.355)
Education	≤High school ^a	42	27.5	3.15±0.52	2.70±0.76	3.09±0.71	3.67±0.56	3.17±0.76
	≤College ^b	92	60.1	3.24±0.56	2.81±0.73	3.17±0.71	3.79±0.58	3.03±0.74
	≥Graduate school ^c	19	12.4	3.10±0.62	2.73±0.69	2.73±0.87	3.94±0.68	2.81±0.87
	F(<i>p</i>)			0.66(.518)	0.40(.674)	2.93(.057)	1.37(.257)	1.48(.232)
Scheffe Test								
Monthly income (10,000 Won)	< 200 ^a	44	28.8	3.14±0.63	2.77±0.82	3.01±0.78	3.59±0.71	3.34±0.71
	< 300 ^b	47	30.7	3.17±0.48	2.79±0.67	3.07±0.70	3.72±0.53	2.92±0.72
	≥300 ^c	62	40.5	3.26±0.55	2.76±0.71	3.17±0.74	2.96±0.48	2.91±0.78
	F(<i>p</i>)			0.68(.508)	0.03(.975)	0.67(.515)	5.86(.004)	5.07(.007)
Scheffe Test						a>c	a>b,c	
Subjects for giving care	Grand parent ^a	11	7.2	3.56±0.59	3.13±0.82	3.37±0.70	4.29±0.66	3.18±0.70
	Parent ^b	134	87.6	3.18±0.55	2.74±0.71	3.09±0.75	3.76±0.55	3.02±0.76
	Spouse ^c	8	5.2	2.98±0.46	2.76±0.90	2.81±0.51	3.33±0.70	3.13±0.92
	F(<i>p</i>)			3.09(.049)	1.46(.236)	1.40(.249)	7.08(.001)	0.27(.763)
Scheffe Test				a>c		a>c		
Residence [†]	Home	131	85.6	3.21±0.56	2.78±0.74	3.08±0.74	3.81±0.58	3.07±0.77
	Hospital	22	14.4	3.13±0.51	2.74±0.69	3.14±0.74	3.58±0.59	2.88±0.75
	t(<i>p</i>)			0.64(.524)	0.21(.838)	-0.33(.742)	1.72(.088)	1.06(.289)
Health status	Good	53	34.6	3.19±0.58	2.73±0.73	3.06±0.83	3.88±0.52	2.92±0.74
	Average	92	60.1	3.20±0.55	2.80±0.73	3.12±0.70	3.75±0.62	3.05±0.75
	Bad	8	5.2	3.14±0.43	2.72±0.73	3.01±0.71	3.50±0.50	3.67±0.85
	F(<i>p</i>)			0.06(.946)	0.18(.837)	0.15(.863)	1.83(.164)	3.40(.036)
Scheffe Test							c>a,b	
Disease	No	67	43.8	3.16±0.60	2.70±0.79	3.02±0.78	3.77±0.64	3.09±0.84
	Yes	86	56.2	3.23±0.51	2.83±0.67	3.15±0.71	3.79±0.55	3.00±0.70
	t(<i>p</i>)			-0.80(.423)	-1.06(.292)	-1.05(.295)	-0.20(.844)	0.72(.474)

[†]Elderly's residence before nursing home admission

Table 2. Comparison of Care Burden according to Participants' Caring related Characteristics (N=153)

Variables	Categories	n	%	Care Burden				
				Total	Social	Economical	Emotional	Physic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Hospitalization periods	<1 year ^a	19	12.4	3.18±0.57	2.88±0.71	2.88±0.91	3.73±0.64	3.32±0.85
	<2 year ^b	53	34.6	3.26±0.66	2.96±0.82	3.09±0.86	3.75±0.70	3.19±0.73
	<5 year ^c	54	35.3	3.16±0.46	2.64±0.61	3.18±0.56	3.78±0.49	2.83±0.74
	≥5 year ^d	27	17.6	3.15±0.48	2.58±0.70	3.08±0.68	3.85±0.51	2.98±0.74
	F(p)			0.36(.781)	2.64(.052)	0.78(.508)	0.21(.891)	3.07(.030)
Scheffe Test				a>c				
Worsening of elderly's health	Yes	93	60.8	3.13±0.48	2.68±0.62	3.05±0.71	3.72±0.55	2.90±0.79
	No	60	39.2	3.31±0.63	2.91±0.85	3.16±0.78	3.86±0.64	3.26±0.68
	t(p)			-1.90(.060)	-1.77(.080)	-0.96(.337)	-1.47(.145)	-2.96(.004)
Decision maker of elderly's hospitalization	Elderly ^a	9	5.9	3.14±1.00	2.94±1.30	2.81±1.23	3.56±0.90	3.48±0.53
	Participant ^b	42	27.5	3.13±0.50	2.71±0.73	3.01±0.67	3.67±0.58	3.13±0.75
	Family member ^c	91	59.5	3.20±0.51	2.76±0.65	3.13±0.71	3.82±0.51	2.91±0.75
	Relatives ^d	11	7.2	3.46±0.57	2.98±0.78	3.35±0.80	4.06±0.79	3.39±0.85
	F(p)			1.06(.368)	0.57(.639)	1.13(.339)	1.89(.134)	2.92(.036)
Scheffe Test				a>c				
Monthly admission fee (10000 Won)	<50 ^a	17	11.1	2.77±0.44	2.33±0.64	2.54±0.64	3.42±0.69	2.84±0.87
	<70 ^b	59	38.6	3.13±0.45	2.66±0.58	3.01±0.71	3.77±0.50	2.95±0.72
	<100 ^c	42	27.5	3.35±0.49	2.86±0.66	3.38±0.59	3.94±0.57	2.96±0.65
	≥100 ^d	35	22.9	3.34±0.70	3.07±0.93	3.17±0.85	3.78±0.63	3.38±0.84
	F(p)			6.14(.001)	5.07(.002)	6.23(.001)	3.33(.021)	3.26(.023)
Scheffe Test				c,d>a	c,d>a	c,d>a	c>a	d>a
A payer for admission fee	Elderly ^a	6	3.9	3.19±0.88	3.00±0.97	2.81±1.23	3.85±0.73	2.89±1.15
	Participant ^b	57	37.3	3.19±0.46	2.75±0.63	3.13±0.64	3.77±0.57	2.99±0.66
	Family members ^c	90	58.8	3.20±0.59	2.77±0.77	3.09±0.77	3.78±0.60	3.08±0.80
	F(p)			0.01(.997)	0.32(.726)	0.50(.611)	0.06(.946)	0.38(.687)
Scheffe Test								
Burden of expenses	Very ^a	121	79.1	3.29±0.52	2.88±0.71	3.26±0.65	3.82±0.57	3.06±0.74
	Moderate ^b	21	13.7	2.86±0.33	2.40±0.54	2.54±0.54	3.57±0.54	3.13±0.76
	No ^c	11	7.2	2.76±0.75	2.26±0.78	2.29±1.00	3.75±0.80	2.67±0.98
	F(p)			10.34(<.001)	7.49(.001)	19.03(<.001)	1.68(.190)	1.49(.229)
Scheffe Test				a>b,c	a>c	a>b,c		
Visiting frequency (per month)	≤1 ^a	24	15.7	3.32±0.49	2.77±0.68	3.40±0.64	3.77±0.54	3.39±0.65
	≤3 ^b	65	42.5	3.27±0.54	2.79±0.70	3.23±0.69	3.90±0.55	2.99±0.75
	≤5 ^c	36	23.5	3.13±0.55	2.73±0.76	2.96±0.71	3.73±0.51	3.05±0.78
	≥6 ^d	28	18.3	2.99±0.60	2.77±0.82	2.69±0.80	3.57±0.75	2.85±0.82
	F(p)			2.32(.087)	0.06(.983)	5.69(.001)	2.25(.085)	2.43(.067)
Scheffe Test				a,b>d				
Visiting duration (hour per each visiting)	<1 ^a	53	34.6	3.21±0.47	2.72±0.66	3.21±0.59	3.78±0.50	3.00±0.82
	<2 ^b	77	50.3	3.22±0.58	2.81±0.75	3.10±0.78	3.79±0.62	3.05±0.72
	≥2 ^c	23	15.0	3.09±0.64	2.76±0.81	2.79±0.85	3.73±0.67	3.10±0.83
	F(p)			0.47(.627)	0.24(.786)	2.72(.069)	0.08(.922)	0.15(.862)
Scheffe Test								
Commuting time(Minute)	<30 ^a	59	38.6	3.16±0.58	2.72±0.76	3.08±0.74	3.77±0.60	2.90±0.76
	<60 ^b	65	42.5	3.29±0.49	2.86±0.70	3.23±0.66	3.82±0.54	3.20±0.71
	≥60 ^c	29	19.0	3.05±0.60	2.68±0.74	2.80±0.85	3.70±0.68	2.95±0.84
	F(p)			2.18(.116)	0.95(.390)	3.55(.031)	0.35(.703)	2.59(.078)
Scheffe Test				b>c				
Previous experience for elderly caring	No	133	86.9	3.21±0.55	2.79±0.73	3.12±0.73	3.77±0.58	3.06±0.77
	Yes	20	13.1	3.10±0.58	2.63±0.75	2.89±0.80	3.82±0.64	2.92±0.74
F(p)				0.89(.378)	0.91(.363)	1.32(.188)	-0.36(.722)	-0.77(.444)
Satisfaction for nursing home service	Yes ^a	75	49.0	3.06±0.58	2.66±0.75	2.89±0.76	3.62±0.63	3.04±0.76
	Moderate ^b	59	38.6	3.27±0.47	2.82±0.66	3.24±0.67	3.87±0.47	2.98±0.77
	No ^c	19	12.4	3.51±0.52	3.06±0.79	3.44±0.69	4.13±0.57	3.23±0.80
	F(p)			6.60(.002)	2.55(.081)	6.36(.002)	7.49(.001)	0.77(.465)
Scheffe Test				c>a		c>a	c>a	

미만 53명(34.6%), 2~5년 미만 54명(35.3%), 5년 이상 27명(17.6%)이었다. 노인의 입소이유가 건강악화는 예 93명(60.8%), 아니오 60명(39.2%)이었다. 입소결정자는 노인 본인 9명(5.9%), 주 돌봄자 42명(27.5%), 가족전체 91명(59.5%), 다른 가족원 등 기타 11명(7.2%)이었다. 요양비는 평균 78.00 ± 42.86 만원 이었으며, 50만원 미만 17명(11.1%), 50~70만원 미만 59명(38.6%), 70~100만원 미만 42명(27.5%), 100만원 이상 35명(22.9%)이었다. 요양비 지불자는 환자 본인 6명(3.9%), 주 돌봄자 57명(37.3%), 가족들이 나누어서 부담 90명(58.8%)이었다. 요양비 부담정도는 부담이 된다 121명(79.1%), 그저그렇다 21명(13.7%), 부담이 안된다 11명(7.2%)이었다. 요양시설 방문횟수는 한달에 평균 5.28 ± 6.68 회 이었으며, 한달에 1번 24명(15.7%), 한달에 2~3번 65명(42.5%), 한달에 4~5번 36명(23.5%), 한달에 6번 이상 28명(18.3%)이었다. 머무는 시간은 평균 1.31 ± 2.33 시간 이었으며, 1시간 미만 53명(34.6%), 1~2시간 미만 77명(50.3%), 2시간 이상 23명(15.0%)이었다. 요양시설까지 거리는 평균 36.46 ± 27.10 분 이었으며, 30분 미만 59명(38.6%), 30~60분 미만 65명(42.5%), 60분 이상 29명(19.0%)이었다. 입소한 가족 돌봄 경험은 처음 133명(86.9%), 두 번째 이상 20명(13.1%)이었다. 요양서비스 만족여부는 만족한다 75명(49.0%), 그저그렇다 59명(38.6%), 불만이다 19명(12.4%)이었다.

정보제공 2명(7.7%)으로 열악한 환경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돌봄 관련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의 차이는 시설입소자와의 관계($F=3.09, p=.049$)에서 나타났는데 조부모가 부모나 배우자 보다 부담감이 높았다. 요인1과 2에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없었으며, 요인3에서 월수입($F=5.86, p=.004$)과 시설입소자와의 관계($F=7.08, p=.001$)에서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300만원 이상보다 부담감이 높았고 시설입소자는 조부모가 부모나 배우자 보다 높았다. 그리고 요인4에서는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F=3.27, p=.041$),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 ($F=5.07, p=.007$), 본인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한 경우 ($F=3.40, p=.036$)가 돌봄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연구 대상자의 돌봄 관련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은 전체 값에서 요양비($F=6.14, p=.001$), 요양비 부담정도($F=10.34, p<.001$), 서비스만족도($F=6.60,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요양비는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이 50만원 미만보다 돌봄 부담감이 높았고, 요양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서비스 만족도는 불만이다가 유의하게 돌봄 부담감이 높았다. 사회적 부담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요양비($F=5.07, p=.002$), 요양비 부담정도($F=7.49, p<.001$) 이었다. 요양비는 70~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이 50만원 미만보다 높았다. 요양비 부담정도는 부담이 된다가 그저그렇다와 부담이 안된다보다 높았다. 경제적 부담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요양비($F=6.23, p=.001$), 요양비 부담정도($F=19.034, p<.001$), 시설방문횟수($F=5.69, p=.001$), 통원소요시간($F=3.55, p=.031$), 서비스만족도($F=6.36, p=.002$) 이었다. 요양비는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이 50만원 미만보다 높았다. 요양비 부담정도는 부담이 된다가 그저그렇다와 부담이 안된다보다 높았다. 시설방문횟수는 1번, 2~3번이 6번 이상 보다 높았다. 통원소요시간은 30~60분 미만이 60분 이상보다 높았다. 서비스 만족도는 불만이다가 만족한다 보다 높았다. 심리적 부담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요양비($F=3.33, p=.021$), 서비스 만족도($F=7.49, p=.001$) 이었다. 요양비는 70~100만원이 50만원 미만보다 높았다. 서비스 만족도는 불만이다가 만족한다 보다 높았다. 신체적 부담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입소기간($F=3.07, p=.030$), 입소이유의 노인건강악화($t=-2.96, p=.004$), 입소결정자($F=2.92, p=.036$), 요양비($F=3.26, p=.023$)이었다. 입소기간은 1년 미만이 2~5년 미만 보다 높았다. 입소이유의 노인건강악화여부는 아니오가 예보다 높았다. 입소결정자는 노인 본인이 가족 전체 보다 높았다. 요양비는 100만원 이상이 50만원 미만보다 높았다.

3.4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 특성 중 돌봄 부담감에 차이를 보인 입소자관계(배우자 등 기타 기준), 요양비(50만원 미만 기준), 요양비 부담정도(부담 안됨 기준), 요양서비스만족도(만족 기준) 등 4개를 투입하였으며, 모두 더미변수 처리를 하였다.

분석전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더빈-왓슨 통계량을 구한 결과 1.849로 2근방의 값으

Table 3. Predictors of Elderly Care Burden

(N=153)

Variable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ants)	2.59	.25		10.48	.000		
Subjects for giving care							
-Grand parent	.60	.23	.28	2.55	.012	.43	2.30
-Parent	.25	.18	.15	1.34	.181	.44	2.29
Monthly admission fee							
<700000	.17	.14	.15	1.21	.230	.35	2.85
<1000000	.38	.15	.30	2.49	.014	.37	2.70
≥ 1000000	.34	.16	.26	2.19	.030		
Burden of expenses							
-Very	.42	.16	.31	2.61	.010	.36	2.77
-Moderate	.15	.19	.10	0.82	.415	.38	2.60
Satisfaction for the service							
- Moderate	.13	.09	.11	1.41	.160	.84	1.18
- No	.35	.13	.21	2.65	.009	.85	1.18

Durbin-Watson=1.849, F=5.44, $p < .001$, $R^2 = .255$, Adj- $R^2 = .208$, Tolerance=.36~.85, VIF=1.18~2.77

로 나타나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화잔차를 구한 결과 2개의 값을 제외하고 모두 ±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값도 -3.021 , 3.211 로 ± 3 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구한결과 공차한계는 .36-.85로 .10이상이었으며, VIF는 1.18-2.77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결과 돌봄 부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입소자관계-조부모($\beta = .28$, $p = .012$), 요양비-70-100만원 미만($\beta = .30$, $p = .014$), 요양비-100만원 이상($\beta = .26$, $p = .030$), 요양비 부담정도-부담이 됨($\beta = .31$, $p = .010$), 요양서비스만족도-불만족($\beta = .21$, $p = .009$) 이었다. 즉, 입소자 관계가 배우자 등 기타에 비해 조부모일수록, 요양비가 50만원 미만에 비해 7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일수록, 요양비 부담정도가 부담안됨에 비해 부담이 될수록, 요양서비스 만족도가 만족에 비해 불만족일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20.8%였다($F = 5.44$, $p < .001$, $R^2 = .255$, Adj- $R^2 = .208$).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파악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3.71세였으며, 여자가 53.6%로 약간 많았고, 7.2% 외에는 모두 배우자가 있었다. 직장인 대상으로 대졸이상(72.5%)이 많았고, 월수입도 300만원 이상이 40.5%로 높은 편이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부모(87.6%)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부모(87.6%)를 돌보고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전체 돌봄 부담감에서 차이가 나타난 대상자 특성으로는 요양비가 70만원 이상이거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 그리고 요양시설 서비스에 불만인 경우 등이었다. 하위영역별 돌봄 부담감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높고 사회적 부담감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요양시설 입소로 인해 신체적 부담감은 줄어들었으나 심리적 부담감은 높아졌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9,20]. 또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지원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21],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요양시설에 노인을 맡긴다고 해도 돌봄의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돌

봄 제공자는 여전히 장기부양으로 인한 우울, 소외감, 그리고 소진 등의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입소한 노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감인 죄책감과 우울에 대한 유선영과 탁영란[22]의 연구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 가족이 65세 이상인 경우($t=5.18, p=.025$)나 대졸 미만($t=8.08, p=.005$), 혹은 경제 수준이 중 이하인 경우($t=4.00, p=.048$)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심리적 부담감에 차이가 나타난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 이거나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요양비가 50만원미만보다는 70-100만원인 경우, 그리고 요양시설 서비스에 불만인 경우도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영역중 신체적 부담감에 차이가 나타난 대상자 특성으로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이 많거나 월수입 200만원 이하,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한 경우였으며, 돌봄 관련 특성에서는 입소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입소결정자가 노인본인인 경우 돌봄 부담감이 컸고 요양비 역시 심리적 부담감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요양시설 입소 후 직접 돌보는 도구적 돌봄 역할이 감소하기는 하지만[13], 요양시설의 거리가 멀 경우 면회가 힘들어지고, 배우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혼자서 경제활동을 감당해야 하므로 육체적 피로의 호소가 증가했다는 연구보고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입소이유가 건강악화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체적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돌봄 제공자들의 돌봄 부담감은 높게 나타났다는 일 연구와는 상충하는 결과를 보였다[23]. 따라서 추후에는 이에 대한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돌봄 제공자들은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이차적으로 신체건강의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24]. 그 외 가장 돌봄 부담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적 부담감은 요양비와 요양비 부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부담감은 이 외에 시설방문횟수가 적은 경우와 요양시설 서비스에 불만인 경우 돌봄 부담감이 높았다. 일 연구에서 경제적 부담감은 노인의 병력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돌봄 제공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높았으나[20] 본 연구의 직장인 돌봄 제공자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ennings 등[25]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전에 비해 입소 후에는 돌봄자의 신체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줄었으나 심리적 부담감 중 죄책감의 감정은 오히려 증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로

노인에 대한 역할이나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로 전이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의 돌봄에 대한 의무가 높은 유교적 사고가 남아있는 경우 입소 전의 죄책감은 여전히 잔존하거나 상승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22]. 따라서 요양시설과 가족 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가족의 죄책감과 우울 등의 감소를 돕고 돌봄 부담감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입소자 관계가 부모나 배우자가 아닌 조부모일 때, 요양비가 50만원 미만에 비해 70-100만원 미만이거나 100만원이상, 요양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 요양서비스에 불만족인 경우는 돌봄 부담감이 높아졌다. 실제 요양시설 입소비용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가정불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2,7,14,26-28].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돌봄 제공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21], 돌봄 제공자의 수입 또한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29].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의 크기는 우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24], 이는 결국 심리적 부담감의 유발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요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에 갈등이 유발되는데, 자녀들의 경제 형편이 비슷하고 똑같이 분담한 경우는 불만이 없으나 경제 형편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형편이 더 나은 형제가 똑같이 요양비를 분담하면 다른 형제가 인색하고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남 혼자 부담하고 딸들이 경제적 부담감을 나누지 않는 경우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딸이 부유한 경우 며느리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8].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양비를 매달 마련해야 하는 경우 노후대책을 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7]. 본 연구에서 노인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요양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이었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20.8%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직장인 가족의 돌봄 부담감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초기 연구로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직장인 가족을 편의 추출하여 실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요양시설에 대한 직장인 가족의 돌봄 부담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

로 추후 확대 및 반복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정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환경의 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고 재가 노인의 돌봄 부담감과도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돌봄 양식의 구축에 기여하리라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직장인을 대상으로 돌봄 부담감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정도는 150점 만점에 95.91±16.57점,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20±0.55점이었다. 하위항목들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감, 신체적 부담감이었으며 사회적 부담감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돌봄 부담감에 차이를 보인 대상자 특성은 입소자관계(배우자 등 기타 기준), 요양비(50만원 미만 기준), 요양비 부담집도(부담 안됨 기준), 요양서비스만족도(만족 기준) 등 4개였고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0.8%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직장인의 돌봄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우선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돌봄 부담감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Annual Report. (2018). <http://www.nid.or.kr>
- [2] S. W. Hong., & H. M. Soon. (2007). Family Caregivers' Experience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ir Elder Family Memb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5), 724-735. DOI : 10.4040/jkan.2007.37.5.724
- [3] C. J. Park. (2015). Determinants of Long Term Care Service types of Family Caregiv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0, 31-51. DOI : 10.21194/kjgsw..70.201512.31
- [4] N. O. Cho. (2000). Study on Family Caregiving Burden Scale of Dementia Korea(FCBSD-K).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2(4), 629-640.
- [5] W. H. Kim. (2000).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Yonsei. Seoul. Korea.
- [6] M. Y. Song & K. Choi. (2007). Comparison between primary care-giver for senile dementia elderly among home help service, day care service and short stay service for senile dementia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10(2), 1-24.
- [7] J. H. Seomun & Y. J. Jung. (2011). A Qualitative Study on Caregivers' Burden Experiences for the Long-term Care Qualified Elderly. *Journal of Social Science*, 22(4), 3-30.
- [8] S. J. Choi. (2013). An Independent Study on the Impact of Dementia Patients in Nursing Facilities on Their Familial Careta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ongduk Women's. Seoul. Korea.
- [9] E. J. Kim, & K. M. Sung (2019). An Integrated Review on Main Caregiver's Burden of Elderly in Korean Nursing Hom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267-277. DOI : 10.14400/JDC.2019.17.6.267
- [10] H. Guk. (2018).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caregiver burden among primary family caregiver of patients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ungshin Women's., Seoul. Korea.
- [11] L. S. Noelker & D. M. Bass (1995). Services use by caregivers of elderly receiving case management. *Journal of case management*, 4(4), 142-149.
- [12] M. S. Lee.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giving burden of the elderly before and after entering nursing home. *Korean Journal of Care Work*, 11, 27-43.
- [13] L. H. Jeon, J. H. Lee, S. D. Lim, J. D. Kim, B. S. Kim & B. S. Kang. (2012). A Study on the family Caregiving with Demented Elderly Pers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4(2), 143-156.
- [14] G. J. Park. (2005). A Study on People's Burden of Nursing Their Elderly Family Members and Their Hospitalization into Nursing H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Yonsei. Seoul.
- [15] E. Thompson & W. Doll. (1982). The burden of families coping with the mentally ill: An invisible crisis. *Family Relations*, 31, 379-388. DOI: 10.2307/584170
- [16] T. J. Ringer et al. (2020).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and support needs of informal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attending an outpatient geriatric assessment clinic. *Ageing & Society*, 40, 205-228 DOI: 10.1017/S0144686X18000971
- [17] S. Y. You & Y. R. Tak. (2019). Concept Analysis of

- Family Involvement in Nursing Hom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1(2), 86-98.
DOI: 10.17079/jkgn.2019.21.2.86
- [18] E. J. Kim. (2020). Development of the Care Burden Scale for Family of Elderly in Nursing Fac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 [19] J. Y. Lee & Y. A. Kim. (2009). Relationship between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aregiv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 41-48.
- [20] S. H. Lee. (2010). Feeling of Family Caregivers' Burden with Elder In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2(1), 69-92.
- [21] E. J. Han, R. I Hwang, S. Y. Park & J. S. Lee. (2019). Comparison of Caregiving Burdens among Family Members by the Type of Benefits in Long-term Care. *Korea Social Policy Review*, 26(3), 93-116.
DOI : 10.17000/kspr.26.3.201909.93
- [22] Y. S. Yu & Y. R. Tak. (2014). Feelings of Guilt and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after Nursing Home Placement fo Older Adults. *Journal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6(3), 276-287.
DOI : 10.17079/jkgn.2014.16.3.276
- [23] S. J. Han, S. Y. Lee, J. Y. Kim & H. S. Kim.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Caregiver Burden for Patients with Dementia: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Nursing*, 16(3), 242-254.
DOI : 10.17079/jkgn.2014.16.3.242
- [24] H. J. Ko. (2011). Factors Determining the Main Caregiver's Depression in Long Term Care Insur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yongji. Seoul. Korea
- [25] J. Hennings, K. Froggatt & S. Payne. (2013). Spouse caregivers of people with advanced dementia in nursing homes: A longitudinal narrative study. *Palliative Medicine*, 27(2), 683-691.
DOI : 10.17079/jkgn.2014.16.3.276
- [26] W. H. Kim, C. Y. Park, J. J. Yu & I. M. Kang. (2003). A Qualitative Analysis on Familial Caregivers' Burden in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13(1), 1-22.
- [27] S. H. Kwon & Y. S. Tae. (2012). The Experience of Adult Korean Children Caring for Parents Institutionalized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1), 41-54.
- [28] H. J. Yoo. (2013). A Study on the Conflict Among Siblings Regarding the Long-term Care of Older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0, 63-91.
DOI : 10.16975/kjfs.2013..40.003
- [29] R. J. V. Montgomery, J. G. Gonyea & N. R. Hooyman. (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34(1), 19-26.
DOI: 10.2307/583753

성 경 미(Kyung-Mi Sung)

[장학원]



- 1992년 9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정신건강, 조현병, 양육스트레스

· E-Mail : sung@gnu.ac.kr

김 은 정(Eun-Jung Kim)

[장학원]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재학 중
- 관심분야 : 요양시설 돌봄 부담, 뇌졸중
- E-Mail : 6166jin@naver.com